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진 현 · 하 지 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낮은 신체만족도를 보이며 두드러진 외모관리를 행하는 한국 여고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거주 여고생 66명에게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K-OBC-Y)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을 마친 여고생들의 K-OBC-Y 평균 점수인 38.08 이상의 높은 신체의식을 가진 10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들은 본인의 신체에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인 부모, 또래, 미디어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신체부분별 구체적인 이상적 신체이미지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미디어는 여고생들의 신체불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고생들은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로 다양한 외모관리를 일상적이며 기본적인 것이라 인식하며 행하고 있었으나, 체중관리는 외모관리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여고생에게서는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여고생들의 외모관리는 신체불만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이 불만족하는 신체부위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서 사회적 문제점 및 시사점을 찾고, 그들의 신체 이미지에 바람직한 사회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립한다는 점과 향후 여고생의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향성 제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관해 단편적인 유형화와 가중치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양적인 통계 수치로 주를 이루는 연구들 사이에서, 양적연구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향후 청소년의 외모 관련 연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재고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여고생, 청소년, 신체불만족, 외모관리, 질적 연구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하지수, jisoocha@snu.ac.kr

접수일: 2016년 8월 25일, 수정논문접수일: 2016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7일

I. 서론

외모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름답고 날씬한 몸은 개인의 신체적 차이와 관계없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도달해야하는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 사회적 분위기는 성인에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는 TV 속 아이돌 그룹처럼 근육 있는 몸을 가지려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고등학교 남학생, 무리한 다이어트로 거식증에 걸린 여중생, 화장이 필수가 된 여학생 등 청소년의 신체왜곡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외모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Chae & Jo, 2015).

2015년 한국 중·고등학생 7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5) 결과에 따르면, 최근 30일간 체중감소를 시도한 여학생은 42.2%에 달하여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체중감소 시도율인 22.7%와 19.5% 격차를 나타냈다. 이들 중 단식, 살 빼는 약 복용, 식사 후 구토 등의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한 비율은 18.5%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1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건강검사에 따르면, 여고생 100명 중 12명은 빈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다이어트가 원인이었다(Lee & Park, 2016). 또한 여고생은 여중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더 낮고, 체중관리, 의복관리, 얼굴관리 등의 외모관리를 자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2014).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 중 여성 청소년들, 특히 낮은 신체불만족과 두드러진 외모관리 현상을 보이는 여고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청소년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소년

년의 신체불만족 연구(Kim & Yoon, 2009; Kim, & Kim, 2010; Kim, 2012; Lee & Yoo, 2015)는 주로 신체불만족의 관련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외모관리 연구(Kim & Kim, 2002; Kim & Wee, 2015; Lee, 2008; Lee, 2012; Min, 2008)는 집단을 변인으로 두고 외모관리행동을 분석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매개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개인적·인지적 지각, 문화적 영향과 얽혀있어 양적 접근으로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Kaiser, 1997),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척도를 통하여 신체만족도를 측정하고, 집단별로 신체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며, 신체불만족의 영향요인 간 관계에 대하여 양적 접근으로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청소년이 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인 이유를 탐색하려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질적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이 신체불만족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들이 갖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는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많은 미디어와 사회 각계에서 청소년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대해 이슈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외모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들 역시 집단에 따른 외모관리 수행정도를 측정하거나 특정 변인으로 외모관리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양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밝힌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로 외모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적인 방법을 통해 상세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이미지에 대한 왜곡으로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며, 외모관리에 대해 높아진 요구와 기대로 인해 무리한 외모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인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는 정성적 접근을 통해 그들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 및 외모관리와 그 관계를 밝혀, 향후 한국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구축과 외모관리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신체불만족

신체이미지(body image)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정신적 상(像)이며, 이는 자아이미지(self image)로 우리 자신에 관한 감정에 영향을 주며 신체적 자아(physical self)의 필수적 구성요소이기도 하다(Kaiser, 1997). 사람들은 단순히 이미지를 갖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만족이나 불만족과 같은 감정적 정향을 갖는데, 이를 신체만족도(body cathexis)라 한다. 신체만족도는 신체 전체 또는 신체의 여러 부위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만족도를 의미하고 이는 신체이미지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다(Horn, 1975). Second and Jourard(1953)에 의해 신체만족도의 측정 도구가 고안된 이후, 이는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Kaiser(1997)는 사람들이 패션모델이나 미디어에서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그들의 모습과 같지 않음을 깨달을 때 자신의 신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로서, 자신의 외모나 행동이 적합한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타

인들도 자신과 같은 정도로 이를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육체적·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시기로, 급격한 발달을 보이며 성인의 특징을 갖추는 등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인데(Lee et al., 2001),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를 민감하게 지각하여, 자신이 갖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 자신의 신체와의 괴리를 느끼고, 신체불만족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McKinley and Hyde(1996)는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신체를 대상(object)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심리적 경험인 대상화된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이 발달하며, 이러한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신체경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청소년 내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에 더 신체불만족이 강하게 나타났다(Chung & Shin, 2006; Kim et al., 2012), 여중생 보다는 여고생이 신체만족도가 더 낮은 연구결과를 보였다(Jeon, 2001; Kim & Kim, 2002; Lee, 2014).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데(Kim & Kim, 2010), Kim and Yoon(2009)의 여자 중·고등학생 체형인식도 조사 결과, 그들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약간 통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자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체형은 BMI 구분으로 저체중에 속하였다. 여고생들은 자신의 신체 중 다리 굵기, 배, 체중, 엉덩이의 순으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Lee, 2012), Lee and Yoo(2015)의 연구에서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정상 범주에 속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그 중 남학생 45%, 여학생 46.7%만이 자신을 정상체형으로 인식하였다.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은 여러 요인들로부터 기인한다. 사회문화적 영향의 하위변인인 부모, 또

래,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간접적인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Kim, 2012),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직·간접 효과 크기가 가장 큰 것은 미디어이다(Kim & Kim, 2010; Kim, 2012).

또한, 이러한 신체불만족은 청소년의 외모관리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Lee, 2008; Shin & Cheon, 2008). 청소년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체만족도의 수준이 낮아 외모کم플렉스 수준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며, 신체불만족 정도에 따라 외모관리의 여부가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신체불만족이 높을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Kim, 2014; Lee & Yoo, 2015; Park & Choi, 2008), 청소년들의 신체불만족은 단순히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외모관리 실행으로 그치지 않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 고찰과 분석이 대부분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신체만족도가 낮은 한국 여고생은 신체불만족의 표현에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부모, 또래, 미디어 등이 존재한다. 또한 그들만의 구체적인 이상적 신체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질적 고찰과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재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이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 표현과 영향요인,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고 선행연구들과 어떠한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외모관리

외모관리행동(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이란 자기만족과 더불어 본인의 외모를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말한다(Lee & Jung, 2012). Cash and Pruzinsky(1990/2000)는 미의 향상을 위한 외모행동들로 화장, 성형, 헤어스타일 등을 언급했으며, 특히 의복관리는 바람직한 자신의 외모표현을 창조해나가기 위해서 기타의 외모관리와 함께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하였다.

현대인들에게 몸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의 일부로서, 자신들이 갖는 이상적인 이미지의 몸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고 완성하는 일종의 프로젝트로 간주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고, 소유자의 각성과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실체로 인식되었다(Shilling, 1993/2011). 성별과 연령의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들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행동들도 목격되고, 사회전반에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이는 신체만족도가 낮고 외모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청소년기의 여고생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SBS 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에서는 성형수술에 중독된 여고생과 그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고민이 소개되었고(Go, 2015), 평소 동경하는 아이돌 연예인의 무대의상처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는 여고생의 사연이 나오기도 하였다(Yoo, 2016).

국내 선행연구에서 여고생의 외모관리를 다룬 것들을 살펴보면, Kim and Wee(2015)는 여고생의 경우 친구와의 외모비교가 헤어 및 스타일 관리, 얼굴관리, 체중관리, 청결관리의 모든 외모관리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이 있다

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Min(2008)과 Park(2014)는 신체불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미디어는 외모지상주의 가치형성으로 성형과 같은 신체변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Lee(2008)는 의복, 피부관리, 화장, 미용성형, 몸매관리, 헤어의 6개 요인으로 청소년의 외모관리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의복행동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Kim and Kim(2002)의 연구에서 여고생은 목욕, 피부손질, 머리손질과 같은 소극적인 수준의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며, 약물 복용, 섭취 조절, 신체변화처럼 위험한 행동은 적게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Lee(2012)의 연구에서는 의복관리, 체중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외모변형 행동으로 여자 청소년의 외모관리를 살펴보았을 때, 여고생의 외모관리가 피부관리와 헤어관리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을 통한 체중 및 피부관리,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각 연구의 시기에 따라 여고생은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와 그 행동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한국 여고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 여고생의 외모관리 양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고생의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심층면접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외모관리 구분은 선행연구자별로 상이했지만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외모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얼굴관리, 체중관리, 의복관리가 높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증가하는 청소년의 미용성형을 살펴보고자 외모변형을 포함한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관한 연구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다. 청소년은 취약한 연구참여자군에 속하기 때문에, 연구 시작 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승인번호 IRB No. 1607/001-011).

정보제공자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본 심층인터뷰를 모두 실시하기 전에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을 설명한 후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배포 및 수집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본인의 동의 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므로, 심층인터뷰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도 오프라인 서면으로 실시하였다.

2. 정보제공자 선정

여러 선행연구에서 소수의 인터뷰 대상자로 의미 있는 결론을 보여주는 질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질적 연구는 적은 수의 응답자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얻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실존적인 연구로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진정성 있게 기술하고자 했으며, 유사한 연구(Hong & Park, 2015; Hwang & Cheon, 2011; Jun & Ha, 2014)를 참고하여 심층인터뷰의 적정 정보제공자 수를 10명으로 산출하였다. 정보제공자는 지인 소개를 중심으로 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으로 모집하였다.

심층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Koo and Ha (2010)의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for youth: K-OBC-Y)로 한다. K-OBC-Y는

Koo and Ha(2010)가 Lindberg et al.(2006)이 제작했던 OBC 척도 원 문항을 3차에 걸친 변안/역변안 후, 타당도를 분석하고 신뢰도를 검증하여 14개 문항이었던 척도 문항을 9개의 최종 문항으로 제안한 것이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리커트(Likert)식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화된 신체의 식 수준이 높은 것을 뜻한다. 설문문항 번호 1~4는 신체감시성, 번호 5~9는 신체수치심 하위척도를 나타낸다.

이후 심층인터뷰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는 설문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보호자 동의를 얻어 심층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에 위치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1, 2, 3학년 여고생 66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든 척도에 같은 답을 하는 것과 같이 응답이 불성실한 6명의 설문은 제외시켜, 총 60명의 여고생(고 1: 17명, 고 2: 26명, 고 3: 17명)의 K-OBC-Y를 계산하였다. 60명의 여고생들의 설문을 분석하여 산출된 문항별 평균값은 신체감시성 19.31, 신체수치심 18.77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평균값은 38.08로 나타났다. 설문을 마친 여고생 중 K-OBC-Y점수가 평균인 38.08보다 높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호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하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총 10명의 정보제공자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심층인터뷰는 2016년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인터뷰 이전에 연구주제, 목적, 방법,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인터뷰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인터뷰는 각 정보제공자와 1:1로, 정보제공자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

행되었다.

정보제공자들에게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구성하되, 정보제공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며 자유로운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연구자가 질문하는 반구조화 심층면접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고, 인터뷰 중 정보제공자의 비언어적 요소들은 연구자가 별도로 메모하였다. 인터뷰 후 모든 내용은 깊게 검토하여 각 자료들을 주제 목록으로 만들어, 이들 주제들이 모든 자료를 다룰 수 있으면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횡단적·범주적 지표화(cross sectional and categorical indexing)에 따라 일관된 지표체계를 갖추어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와 분석 과정은 2~3차례 반복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4. 정보제공자 특성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정보제공자 10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두 서울시 내의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이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 3명, 2학년 4명, 3학년 3명이다. K-OBC-Y가 모두 40 이상으로 또래보다 높은 신체의식을 가진 10명의 정보제공자들은 공통적으로 신체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정보제공자들은 인터뷰 중 신체불만족에 대한 표현과 그 영향요인 및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현재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에 대해 자유롭게 답했다. <Table 1>은 정보제공자의 개인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며, 본 연구에 등장하는 모든 정보제공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Table 1. 정보제공자 특성.

	이름(가명)	성별	나이(만)	학년	K-OBC-Y
1	조수아	여	17세	고등학교 3학년	47
2	강효민	여	16세	고등학교 2학년	42
3	장세영	여	16세	고등학교 2학년	40
4	이보미	여	16세	고등학교 2학년	51
5	최하린	여	16세	고등학교 2학년	44
6	김서윤	여	17세	고등학교 3학년	42
7	신예나	여	15세	고등학교 1학년	44
8	박채아	여	17세	고등학교 3학년	41
9	배지원	여	15세	고등학교 1학년	41
10	민서연	여	15세	고등학교 1학년	40

※모든 정보제공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IV.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

본 연구에 참여한 여고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여고생들이 그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 표현과 그 영향요인이 부모, 또래, 미디어로 인해 형성된 이상적 신체이미지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그들이 가지는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구체적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에 대한 각 정보제공자들의 응답을 통해 여고생들의 외모관리는 매우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행동양식이 되었으며, 그들은 각 외모관리 시에 자신의 신체불만족을 고려한 외모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불만족

1) 신체불만족의 표현

전체 정보제공자 10명은 본인의 몸에 관한 불만족들을 인터뷰 내내 이야기 하였다. 여고생 10명 중에서도 신체의식이 높은 편에 속하는 이보미(K-OBC-Y: 51)와 조수아(K-OBC-Y: 47)는 연구자

에게 여러 번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해서 설명했다.

“제 **콤플렉스**는 눈이랑 다리예요. 다리가 잘 붓고 근육이 너무 커요. 다리가 정말 **스트레스**예요. 사진 찍을 때 얼굴도 신경 쓰여요. 친구들이랑 찍으면 제가 막 오징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키부터 미달**이에요.” (조수아, 17세, G3)

인터뷰에 참여한 10명의 여고생 모두 본인의 키와 체중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했으며, 정상범위보다 더 마른 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질량지수인 BMI(신체질량지수)로 살펴본 10명의 체형은 비만범위인 2명을 제외한 8명의 BMI는 18.07에서 21.67로 정상범위에 해당하였다. 오히려 낮은 체중보다는 낮은 체지방률로 보기에 말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마른 몸을 선호하고 주관적인 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Kim & Yoon, 2009; Kim, & Kim, 2010)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허벅지가 몸에 비해 굵은 편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말랐으면** 좋겠는데 또 완전 마른 건 싫어요. 몸무게는 상관인데 몸매를 봤을 때 **빠져 보이면 좋겠어요**.” (김서윤, 17세, G3)

10명의 정보제공자들은 그들의 신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해서 신체부위별로 불만족을 표현하였으며, 자신의 얼굴과 몸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리와 팔의 살과 근육에 대해서는 굵고 두꺼워 없애버리고 싶다는 표현이 많았으며, 얼굴의 눈, 코, 얼굴형 등에 대해서는 “예쁘지 않다, 거슬린다, 슬프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아리부터 보게 되요 **종아리 살이랑** **알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이걸 없애고 싶어요** 툭 튀어 나온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수술도 생각하게 되요” (장세영, 16세, G2)

“**코가** 제일 큰 불만족이에요 손가락을 콧대 아래로 두었을 때, 손가락에 눈두덩에 닿으면 코가 진짜 낮은 거래요 **너무 슬퍼요** 코가 너무 낮아요” (신예나, 15세, G1)

또한, 거울을 보거나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불만족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강한 관찰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침울하거나 우울하다는 말과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이어졌다.

“코가 너무 안 예쁘고 콤플렉스예요 **거울 보면 코가 가장 거슬려요** 코랑 얼굴형이랑 눈이랑 다 거슬려요 저 샤워하려고 옷 다 벗고 거울 앞에 서면 **침울**해져요 보이는 부분만 마른 건데.. 전 마른편이 아니고 보통이에요” (최하린, 16세, G2)

“**다른 사람들 허벅지부터 눈에 들어와요** 뱃살도 그렇고 팔뚝도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말렸어요 다 예뻐요**” (강효민, 16세, G2)

신체불만족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초래하는 것 (Kim, 2014; Lee & Yoo, 2015; Park & Choi, 2008)을 그들의 신체불만족 표현 속에서 나타났다.

2) 신체불만족의 영향요인

앞서 살펴본 여고생들의 신체불만족은 부모, 또래, 미디어로부터 받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몸과 얼굴에 대한 이상적 신체이미지 형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인한 것이었다. 정보제공자들은 이러한 영향요인들로 만들어진 이상적인 기준을 외모평가의 잣대로 두어, 본인의 신체에 대한 비교와 평가로 불만족을 보이고 있었다.

부모의 외모비교와 그에 대한 태도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외모인식 형성과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보미는 저체중 범위에 매우 가까움에도, 부모로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자신이 마른 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자매와의 몸매를 비교하는 말로 인해, 자신의 몸에 불만족을 느끼며 더 살을 빼야 한다고 했다.

“전 마른 편이 아니예요 **엄마가** 몸무게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압박**을 주세요 ‘**살 빼야 되지 않겠느냐**, 살이 더 쪼면 것 같다, 운동 해라’ 이러셔서.. 여동생은 엄청 더 말라서 엄마가 비교해요 동생이 저보다 키도 크고요 엄마가 저한테 한 번도 말랐다고 말해주 적이 없어서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보미, 16세, G2)

배지원은 이보미와 조금 다른 형태로 부모로부터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엄마에 대해 깊은 신뢰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엄마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평가하는 말들을 통해 자신의 신체불만족이 형성되었다고 답했다. Cho and Kim(2008)에 따르면, 부모가 마른 몸매에 대한 신념이 높으면 자녀도 마른 몸매에 대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몸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기 자녀가 몸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팔뚝이 좀 부담스러워요 **엄마**도 그렇게 말하고... 전 팔뚝이 얇은 편이 아니에요 엄마가 객관적인 편이라 엄마 말을 잘 믿어요 **엄마가 지적을 많이 하세요** 엄마가 말하는 게 싫진 않아요 인터넷 정보보다 **엄마의 말이 더 중요해요**” (배지원, 15세, G1)

정보제공자들은 또래집단인 학교, 학원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의 외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또래 간에 예쁘다는 외모평가를 받는 친구들의 존재와 다이어트나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친구들로 인해 본인의 신체에 불만족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런 애들 보면 부럽긴 해요 **친구들 중에 몸매가 예쁜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저는 누가 봐도 신경 쓴 게 티가 나는데, 걔는 그런 티가 안 나는데 더 예뻐요 그림 집에 가고 싶어져요 신경을 안 써도 예쁜 친구 보면, 저한테 **너무 화가 나고 삐뚤어져요 너무 짜증나요** 진짜...” (신예나, 15세, G1)

사회문화적 영향요인 중에서 미디어는 여고생들의 신체불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업로드 된 『갯잇뷰티』, 『화장대를 부탁해』, 『더바디쇼』, 『렛미인』 등 TV 뷰티 프로그램의 영상 편집본, 유튜브의 뷰티 크리에이터 영상들과 다음 카페 ‘뉴뽕’, 어플리케이션 ‘피키캐스트’,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뷰티정보를 매일 매우 높은 빈도로 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보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고 이상적인 외모 신체불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았다.

“**뷰티 프로그램** 같은 게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 가만히 있을 때는 일상생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틀면 항상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너는 얼굴에서 **이게**

모자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조수아, 17세, G3)

“이제 다 **페이스북** 때문인 것 같아요 **페북 스타** 같은 사람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몸이 말랐는데 이런 거 보니까 몸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다리가 젓가락 같고...” (장세영, 16세, G2)

이러한 영향요인들로 인해 형성된 한국 여고생들의 이상적 신체이미지는 또다시 신체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정보제공자 10명 모두 자신만의 확고한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3) 이상적 신체이미지

10명의 여고생들은 신체이미지에 대해 신체부분별로 구체적 외모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11자 복근, 1자 다리, 큰 키, 큰 골반과 가슴, 걸크러쉬(girl crush)가 느껴지는 썸 이미지의 얼굴, 가름하고 작은 얼굴, 걸어본 적 없는 것 같은 종아리 등 몸과 얼굴의 부분별 이상적 이미지를 답했다.

“근육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은? **한 번도 안 걸** 어본 **다리** 같은 거요 **알이 두드러지지 않는 다리**가 예쁜 것 같아요” (조수아, 17세, G3)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매는... 여자들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마르고 11자 복근에 골반 넓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몸매요 **마르고 뺏야 해요 일자다리** 무조건 얇아야 해요” (이보미, 16세, G2)

“**썸 언니 스타일**이 워너비예요 **걸크러쉬**요 하얗고 여러여리고 **썸 얼굴**이요” (배지원, 15세, G1)

워너비(wannabe)는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동경으로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뜻하며(Ko & Kwak, 2011), 정보제공자별로 그들의 워너비에 대해 아이돌부터 배우까지, 비슷한 또래부터 40대의

여성까지 각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다른 체형에 대한 선호는 공통적으로 매우 높았다.

“위너비는 **현아**예요 아 진짜 현아. 그리고 **전지현**이요 전지현이 딱 전형적인 완벽한 몸매인 것 같아요 얼굴 작고 다리길고 현아는 이목구비 뚜렷하고 세계 생김 얼굴을 좋아해서 마음에 들어요” (최하린, 16세, G2)

“외모적으로 **한예슬**이 좋아요 눈이 너무 예뻐요 전체 다 갖고 싶어요 다리가 한예슬처럼 예쁜 다리가 되고 싶어요 다리를 꼬았을 때 허벅지 살이 튀어 나오는 게 싫어요” (박채아, 17세, G3)

Jang and Kim(2006)이 신체이미지 지각을 여자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세 연령 집단별로 살펴본 연구에서 고등학생 집단이 초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 비해 자극물인 비디오미디어 시청 후 가장 크게 신체이미지 변화를 보인 것과 같이, 여고생들의 이상적 신체이미지 형성에 미디어 노출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외모관리

1) 얼굴관리

정보제공자들은 모두 화장을 통해 그들의 얼굴관리를 행하고 있었다. BB 크림, 파운데이션, 쿠션팩트 등의 피부색조와 틴트나 립밤 정도는 기본적인 화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의 반 친구들 중 1~2명을 제외한 전체가 기본 화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에서 화장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안 해도 BB에 입술은 기본적으로 발라요 거의 90%가 **기본화장**은 해요 입술에 색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파보이죠” (민서연, 15세, G1)

처음 화장을 시작할 때에는 인터넷과 TV의 뷰

티 프로그램 영상들을 보며 따라했다고 대부분이 답했다. 특히, 『갯잇뷰티』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화장법뿐만 아니라, 소개되는 제품들에 대한 신뢰로 실제 구매로 많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어플리케이션 ‘피키캐스트’와 유튜브(YouTube)의 뷰티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참고하고 있었다. 이는 성인 여성의 인구통계적 특성 중 화장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이 매체접촉도라고 밝힌 Choi and Kang(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화장행동에 미디어의 영향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제일 처음 본 게 **갯잇뷰티**예요 확실히 갯잇뷰티를 보고 나서 **물건을 사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갯잇뷰티에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좋대라고 하면 ‘아? 정말? 한번 사볼까?’하고 사보고... 그리고 틱 같은 걸 많이 얻어가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직접 화장을 해보게 되고요**” (이보미, 16세, G2)

화장의 정도는 기본화장을 하는 김서윤부터 기본 피부색조,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섀도우, 마스크라, 컬러렌즈, 셰이딩, 하이라이터, 컨실러까지 하는 신예나까지 정보제공자별로 달랐다. 학교 규정이 강한 곳을 다닌다는 정보제공자들은 맨 얼굴로 등교하고, 매 쉬는 시간 10분마다 하나씩 화장을 해서 하교 때에는 완전히 화장을 마치고 간다고 설명해주었다.

“학교 갈 때는 **생일**로 가요 학교 갈 때 아침엔 선도부가 서있으니가 못가고요 몰래몰래 수업시간에 하거나 쉬는 시간에 하거든요 애들이 **수업 다 끝날 때쯤 화장을 다해요**” (강효민, 16세, G2)

여고생 10명의 한 달 화장품 구입비용은 정보제공자별로 5천원에서 5만원 정도였다. 화장을 연하게 한다고 화장품 구입비용이 적은 것이 아니었

으며, 피부색조 화장품에는 고급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과 같이 돈은 더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작년에 **아리따움**에서 40만원 쓰고, **올리브영**에서 30만원 썼어요 **좀 많이 쓰긴 해요** 새도우랑 립스틱을 많이 사요 쇼핑은 근처 화장품 가게를 많이 가고요” (최하린, 16세, G2)

“**아모레퍼시픽 선쿠션**이요 **진짜 비싼데 엄청 좋아요** 어린이날 용돈 받아서 샀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민낯쿠션으로 유행 했대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이걸 골랐어요” (배지원, 15세, G1)

여중생들은 10대만의 전용 화장품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이 그들의 즐거운 일상이며 하나의 집단으로 결속시키는 소비행위라고 한 것(Hwang & Cheon, 2011)과 달리, 여고생들은 10대 전용 화장품 브랜드를 저렴해서 편하게 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격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 소비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정보제공자들은 화장품과 화장법 공유를 통해 친구들과의 친분관계를 쌓게 된다고 답하기도 했으며, 친하게 지내는 무리들은 동일한 화장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솔직히 여고라서 처음 들어올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멀리서 오기도 했고 친구 없을까 봐요 근데 애들이랑 처음에 **친해지는 방법이 화장**이었어요 집에 가기 전에 화장할 때 애들이 화장품 쪽으로 다들 몰려요 그러면 그때 친해져요 나 이거 쓰는데 엄청 좋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산 것도 많아요” (장세영, 16세, G2)

“친구들 화장을 보면 **무리에 따라 화장이 달라요** 어떤 친구 무리는 쌍액(쌍꺼풀액)을 하거든요 개네들은 앞트임 아라(아이러니)도 해요 그 무리는 그거랑 새도우도 엄청 진하게 해요” (배지원, 15세, G1)

Hwang and Cheon(2011)이 여중생을 대상으로

화장 행위 및 화장품 소비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을 통해, 여중생에게 화장은 또래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결속시키는 우정의 매개체라는 결과가 여고생과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장은 그들에게 학업으로 인해 생겨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수단이 되기도 했으며,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저는 화장하는게 **스트레스가 풀린단 말이에요** 얼굴의 모습이 변하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는데 화장을 하면 날라리 취급을 하니깐 그게 웃기는 거예요 화장을 잘 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화장하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인지.” (조수아, 17세, G3)

“화장할 때 눈 화장만 20분해요 **더 크게 보이려고요**” (박채아, 17세, G3)

이렇듯 화장이라는 행위는 한국 여고생에게 단순한 외모관리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외모변형

정보제공자 10명 모두 눈, 코, 가슴, 얼굴 윤곽 등 외모변형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한 세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은 수능을 마치고 성형을 받아, 대학 입학 전에 달라진 모습을 얻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몇몇 미디어에서 접했던 정보와 또래집단의 이야기에 의해, 본인이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신체부위의 성형수술을 반드시 감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터넷 카페와 SNS에 올라오는 성형후기를 보거나, 주변 친구들의 성형수술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인 성형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계획한 성형**이 있어요 **윤곽수술**을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얼굴라인**이요 턱이 완전 콤플렉스여서요 이상해요 제 턱 코는 낮아서 엄마가 해준다고 했어요 **제 얼굴 라인이 안 예쁜 것**

같아요 **하자**예요” (이보미, 16세, G2)

“눈이 콤플렉스예요 전 **쌍꺼풀 수술**이 하고 싶어요 졸려 보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수능 끝나고 바로 할 계획**이에요” (김서윤, 17세, G3)

인터뷰 당시 성형수술을 받은 정보제공자는 최하린과 배지원이었으며, 두 명 모두 눈 부분을 성형했다. 또한 추후에 다른 신체부위의 외도변형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

“전 **앞트임**이랑 **뒤통**이 했는데 막혔어요 쌍꺼풀은 다 하나까 그건 성형수술도 아니죠 하고 싶은데 엄청 많아요 **딱 두 군데 나중에 꼭 할 건데요 코랑 가슴**이요 저는 여자는 무조건 가슴이 커야한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크면 무슨 옷을 입어도 예쁘고 배가 좀 나와도 가슴이 있으면 커버가 되거든요” (최하린, 16세, G2)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쌍꺼풀하고 쌍꺼풀 테이프 하고 다녔거든요 엄마가 보다 못해서 그냥 **쌍꺼풀수술**을 하라고 했어요 쥔 처음엔 무서워서 안한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다가 엄마가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하고 나니까 만족하고 아무것도 화장 안하고 나가기도 편하고 좋아요 **보조개 수술**도 하고 싶어 쥔어요” (배지원, 15세, G1)

인터뷰 중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tvN의 프로그램 『렛미인』이었다. 장세영은 『렛미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나서 양악수술이 하고 싶어졌다고 답했다.

“전 렛미인 좋다고 생각해요 성형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예뻐지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렛미인 보고 양악이 하고 싶어**졌어요” (장세영, 16세, G2)

장세영을 제외한 9명은 모순적인 현상을 보였는데, 『렛미인』과 같이 TV에서 보여주는 과도한

성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성형의 위험성을 걱정했지만, 이와 동시에 성형으로 예뻐진 출연자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솔직히 렛미인은 필요 없는데 굳이 극한 변화?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필요 없는데 턱이 긴 사람한테 전신까지 다 한다던가 이런 거 보면 보여주기가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또 보면 예뻐지긴 하나**까 애들 렛미인 보고 학교 오면 나도 전신 다해야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방흡입 해야겠다고 애들이랑 이야기 하고 다리에 근육이 너무 많다고 근육을 다 잘라내고 싶다고 말하고 그랬어요” (조수아, 17세, G3)

3) 체중관리

5명의 정보제공자들은 그들의 공통된 이상적 신체이미지인 날씬한 몸을 위해서 체중관리를 위한 다이어트를 실행하고 있었다. 1일 1식, 단식, 소식, 원푸드 다이어트, 해독주스, 단백질 파우더 섭취로 식이조절만을 하거나 요가, 스트레칭, 헬스, 줄넘기 등의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월화목금일은 학원마치고 **피트니스**가서 운동해요 1시간반정도? 또 유튜브에서 운동영상같은 거 스트레칭이나 그런거 **근력운동** 따라해요 **먹는 것도 조절**해요 아침에 미숫가루, 점심은 그냥 먹고 저녁은 저염식으로 먹으려고 노력해요 **단백질 파우더**를 운동 전후로 먹고 있어요” (최하린, 16세, G2)

“**하루에 한 끼 먹고 줄넘기**해요 일주일 3번, 하루에 2000개씩 줄넘기 하고, 시간 날 때 다리운동하고요 점심때 **1일 1식** 하는데 과일은 조금씩 먹어요” (이보미, 16세, G2)

“제가 한번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뺀**거든요 좋아하는 오빠한테 연락하려고 한 달 동안 8kg 뺐어요 **하루에 200ml 우유 하나** 먹었고 8시 이후에는 물도 안 먹었어요” (신예나, 15세, G1)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나머지 5명의 여고생들은 다이어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하계도 그 중에서 강효민과 장세영은 현재 자신의 몸보다 날씬해지고 싶지만 얼굴만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이라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어려우며, 남에게 잘 보이는 부분이 얼굴이기에 화장이나 피부관리를 통한 얼굴관리가 더 효과적인 외모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어차피 노력해서 다이어트 하면 뭐해요? 사람은 아무리 살을 빼도 안 예뻐져요 주위에 애들도 그렇구요 가슴살도 빠지고... 화장해서 얼굴 가꾸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강효민, 16세, G2)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정보제공자들은 다이어트 정보를 친구, TV 건강프로그램, 포털사이트와 SNS 검색을 통해 얻었다고 했으며,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정보제공자들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성공한다면 그 방법으로 시도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이어트는 운동하는 그런 것 보다는 ‘먹으면 빠진다’ 이런 걸 좋아해요. 포카리스웨트를 하루 종일 먹으면 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친구가 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잘 되면 해보려구요.” (장세영, 16세, G2)

이는 전문가가 보여주는 시연과 정보들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고 있는 화장과 성형과는 달리,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는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또래 친구들의 성공과 실제 후기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패션·뷰티 TV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외모관리 소비행동이 높아지고, 연예인모방, 유행지향, 타인의 식, 시술관리에서는 미디어 신뢰도가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몸매관리에는 영향력이 없다는 연구(Park & Hwang, 2015)와는 일치되는 결과이나, 다이어트 실행 여부에서도 미디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Kim & Kim, 2010)와는 불일치하였다.

4) 의복관리

정보제공자들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을 때에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옷을 입고, 자신의 스타일을 옷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외모관리 중에서 의복관리가 바람직한 외모표현을 위한 것이며(Cash & Pruzinsky, 1990/2000),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외모관리라는 연구결과(Lee, 2008)와 일치한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몸매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옷차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신 없는 신체부분을 가리거나 눈속임을 하는 형태로 의복을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저 약간 다리가 안 예뻐서 바지를 짧은걸 안 입어요 긴 바지만 입거나 치마만 입어요 바지도 일자 통바지요 허벅지가 약간 좀 콤플렉스여서 반바지를 안 입어요.” (이보미, 16세, G2)

“옷 입을 때 허벅지랑 팔뚝 살을 커버할 만한 걸로 입어요 오프숄더 원피스 입으면 팔은 약간 하늘하늘하고 팔뚝이 안보여요 제가 어깨는 안 넓고 팔뚝은 얇으니까 그게 드러나서 커버돼요 바지보다는 치마를 입어요 치마가 너무 짧으면 허벅지가 보이니까 허벅지가 두꺼운 게 티 나잖아요 무릎위로 15센티? 딱 다리라인 예뻐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괜찮다 하는 라인 까지만요.” (신예나, 15세, G1)

“옷 입을 때 가슴 때문에 티를 큰 걸로 입어요 작은 거 입어서 가슴이 드러나면 명칭해 보이고 아줌마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하의로 스키니는 입는데 치마는 안 입어요 안 어울리고 어릴 때부터 안 입었어요.” (박채아, 17세, G3)

또한, 대부분의 정보제공자들이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옷보다 조금 더 연령이 높은,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역과 학교주변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곳에서 친구들이나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처럼, 학교, 학원, 집이라는 일상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정보제공자들이 신경 써서 입는 사복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20대 초반 정도? 하늘하늘한데 비치는 성숙한 블라우스요 청바지는 다리가 두꺼워 붙는 건 못 입구요 일자 아님 배기 입어요 배기도 귀여운 스타일이 많아서 그런 것 중에서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걸 찾아서 입어요 웬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랑 만날 때는 어른스럽게 입어요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옷을 입기보다는 어른스럽게 입고 싶어요**” (신예나, 15세, 고1)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가거나 하면 신경 써서 입는 편이에요**” (김서운, 17세, 고3)

그들은 어플리케이션 ‘스타일쉐어’, SNS 인스타그램, 인터넷 쇼핑몰에서 코디를 참고한다고 했으며, 정보제공자의 일부는 모델이나 유명인의 몸매가 자신들과 달라 그대로 따라 입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드러냈다.

“**쇼핑몰이나 스타일쉐어에 올라오는 거 보고 거기서 검색해서 비슷하게 입으려는 편이에요**” (이보미, 16세, 고2)

“**블로그랑 네이버 패션뷰티에 뜨는 코디랑 스타일쉐어 어플에서 코디를 참고해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랑은 다르게 입고 몸매도 다르니까 그대로 따라 입기는 힘들어요**” (최하린, 16세, 고2)

타인의 시선에 대해 민감한 청소년기의 특징은 의복관리에서도 나타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옷

을 입고 외출했을 때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또래가 입는 유행 스타일이나 과하게 꾸민 스타일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팔에 안 드는 옷 입으면 움직이기 싫어요** 사 진 찍기도 싫고 기분이 안 좋아요 차라리 후줄근 하게 추리닝에 슬리퍼 질질 끌고 가는 건 괜찮아요 이건 꾸민 것도 아니고 안 꾸민 것도 아닐 때, 색깔도 어색하고, 핏도 어색하고, 신발도 이상할 때가 딱 그럴 때예요.” (민서연, 15세, 고1)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교복치마는 괜찮은데, 그냥 치마를 입으면 약간 꾸민 것 같은 거예요 **저희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입어야 해요** 치마를 입고 가면 너 왜 치마 입었어? 하고 애들이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조수아, 17세, 고3)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외모관리에 관심이 가장 높은 청소년인 한국 여고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의 특성을 밝히고,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K-OBC-Y를 사용하여 대상화된 신체의 식 수준이 높은 서울시의 인문계 여고생들 1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들은 본인의 신체에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인 부모, 또래, 미디어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신체부분별 구체적인 이상적 신체이미지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미디어는 여고생들의 신체불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패션·뷰티 관련 정보를 매일 높은 빈도로 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은 외모

에 대한 강한 관심과 신체불만족으로 이어졌다. 이는 청소년의 신체불만족 영향요인 관계에 대한 Kim(2012)의 연구에서 미디어의 영향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또래보다 신체의식이 높은 10명의 여고생 모두 신체불만족이 큰 결과는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신체를 부정적인 신체경험을 한다는 McKinley and Hyde(199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위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여고생들이 신체부위별로 불만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여고생들은 단순히 불만족을 표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 이미지와 괴리되어 있는 신체의 살과 근육을 자신의 몸으로부터 없애거나 덧붙여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둘째, 여고생들은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로 다양한 외모관리를 일상적이며 기본적인 것이라 인식하며 행하고 있었으나, 체중관리는 자신의 체중에 대한 콤플렉스 유무와는 상관없이 외모관리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여고생에게서는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얼굴관리에서 화장은 여고생들에게 외모를 꾸미는 것 이외에도, 친분관계, 스트레스 해소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외모변형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성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외모변형에 대해서는 세세한 성형수술 계획을 밝히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여고생들은 마른 몸을 가지기 위한 체중관리를 행하고 있었으며, 그 정보는 미디어보다 주변의 대인관계에서 얻는 것들을 신뢰하였다. 여고생의 의복관리는 신체불만족 부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의복스타일에 관한 뚜렷한 호불호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집단변인별 외모관리의 수준을 측정하며 비교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여고생들의 외모관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셋째, 여고생들의 외모관리는 신체불만족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이 불만족하는 신체부위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얼굴관리, 외모변형, 체중관리, 의복관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신체불만족이 외모관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들(Lee, 2008; Shin & Cheon, 2008)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여고생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신체불만족에 따라 의복의 종류, 착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질적인 접근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 모두 미디어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에게 미디어 노출이 그들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외모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Kim & Kim, 2010; Kim, 2012; Min, 2008; Park & Hwang, 2015)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며, 향후 연구에서 청소년의 외모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과 그 형태의 변화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체중관리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없다는 연구결과(Park & Hwang, 2015)와 미디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Kim & Kim, 2010) 등 상반된 결과들이 도출되었던 것에 대해,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체중관리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결과를 얻었다. 10명의 여고생이지만 질적인 접근 방법으로 한국 여고생들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를 확인함을 통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청소년 연구에 있어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여고생들이 그들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과 신체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을 위해서 요구되는 중요한 노력이다.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외모관리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 여고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연구의 최초 표본을 편의추출과 눈덩이 표본을 사용한 것과 심층 인터뷰 대상인 서울시 10명의 여고생으로 전체 여고생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조사와 질적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체의식 수준이 높은 여고생을 정보제공자로 선정할 후 인터뷰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여고생의 신체불만족 정도에 따른 집단별 외모관리의 차이에 대한 조사가 추후 필요하다. 또한, 중학생과 남학생처럼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 그 관계에 대해서도 질적인 연구를 통해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서 사회적 문제점 및 시사점을 찾고, 그들의 신체 이미지에 바람직한 사회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립한다는 점과 향후 여고생의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향성 제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불만족과 외모관리에 관해 단편적인 유형화와 가중치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양적인 통계 수치로 주를 이루는 연구들 사이에서, 양적연구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향후 청소년의 외모 관련 연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재고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Cash, T. F., & Pruzinsky, T. (2000).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Lim, S. J., Lee, M. H., Lee, S. H., & Shin, H. J., Trans.). Seoul: Kyomu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Chae, Y. K., & Jo, H. K. (2015, November 11). 거식증 걸린 중3녀, 근육약 먹는 고2남 “아이돌 닮고 싶어” [An anorexia middle school girl in senior year & a high school boy in junior year took muscle pill. “Like an idol”]. *Joongang Ilbo*. Retrieved August 10, 2016, from <http://news.joins.com/article/19052036>
- Cho, Y. K., & Kim, E. M. (2008). Effects of the media, peers and parents on adolescents'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the body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5), 255-274.
- Choi, S. K., & Kang, K. J. (2007). The make-up behavior and effect of psychological expectation after the make-up according to demographics and contact with media of woman.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7(1), 81-95.
- Chung, J. Y., & Shin, H. W. (2006).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clothing benefits sought according to body cathexis and appearance interest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4), 13-23.
- Go, Y. K. (2015, July 12). ‘동상이몽’ 성형중독 딸... 앞, 뒤, 밀트임 했지만 ‘불만족’ [‘Dong-sang-yi-mong’ daughter addicted to plastic surgery...‘dissatisfaction’ in epicanthoplasty, Lateral Canthotomy, lower canthotomy surgery]. *Star Today*. Retrieved August 10, 2016, from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666261&year=2015>
- Hong, S. H., & Park, S. M. (2015).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adolescence school violence experiences of female victims: Focusing on cases of three women in their twen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5), 131-160.
- Horn, M. J. (1975).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Boston: Mifflin.
- Hwang, H. M., & Cheon, H. J. (2011). The makeup experience of middle school girls. *Media, Gender & Culture*, 19(-), 179-211.
- Jang, H. S., & Kim, T. R. (2006). The effect of mass media on body perception and state esteem of body image. *Studies on Korean Youth*, 17(2), 57-83.
- Jeon, K. S. (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body cathexis and clothing satisfaction of middle-and high-school gir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1(5), 5-16.
- Jun, M. K., & Ha, J. Y. (2014). Failure experience in losing weight among obese highschool girl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5(2), 89-99. doi:10.22284/qj.2014.15.2.89

- Kaiser, S.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New York: Fairchild.
- Kim, H. C., & Kim, M. R. (2010). Effect of self-esteem, body image and external factors of body type on dieting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4), 65-75.
- Kim, H. R. (2012).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effects, BMI, body image, and self-esteem on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3), 1-19.
- Kim, H. R. (2014).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effects, BMI, body image, and body dissatisfaction on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2(4), 175-182.
- Kim, J. A., & Kim, Y. S. (2002). A study on the body cathexi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high school girl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4(1), 55-73.
- Kim, M. H., Yun, Y. H., Choi, M. K., & Kim, E. Y. (2012). A study on body image recognition and dietary habit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Chungnam area.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25(2), 338-347. doi:10.9799/ksfan.2012.25.2.338
- Kim, S. J., & Wee, E. H. (2015).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comparison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9(1), 1-14. doi:10.5850/jksct.2015.39.1.1
- Kim, Y. K., & Yoon, K. S. (2009). Awareness of body shape, weight control, and eating disorders in female adolescents living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15(3), 232-252.
- Ko, Y. H., & Kwak, T. G. (2011). A study on the wannabe phenomenon of celebrit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1(1), 17-36.
- Koo, J. Y., & Ha, E. H. (2010).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for youth.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3), 141-158.
-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2015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Osong: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Lee, H. K. (2014).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image, and self-esteem on appearance management in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2), 914-922. doi:10.5762/kais.2014.15.2.914
- Lee, I. J., Lee, K. H., & Shin, H. J. (2001). *의상심리* [Psychology of dress]. Seoul: Kyomunsa.
- Lee, J. S. (2008). Analysis of adolescent appearance management according to degree of body satisfaction: Clothing, skin care and figur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4(2), 384-395.
- Lee, J. Y., & Yoo, J. A. (2015). Influence of body shape perception on self-esteem among normal-weight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The mediating effect of body shape satisfaction and gender differences. *Studies on Korean Youth*, 26(4), 267-297. doi:10.14816/sky.2015.26.4.267
- Lee, K. S., & Park, J. M. (2016, April 6). 과도한 다이어트로 철분 부족...여고생 12%가 빈혈 [Lack of iron due to excessive dieting...12% of high school girls have anemia]. *Health Chosun*. Retrieved August 10, 2016, from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5/2016040502083.html
- Lee, M. S. (2012). The effects of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o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4(4), 163-177.
- Lee, Y. R., & Jung, H. J. (2012). The effects of well-being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of Korean and Japanese consumers on attitudes toward Korean herbal cosme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2), 87-102. doi:10.7233/jksc.2012.62.2.087
- Lindberg, S. M., Hyde, J. S., & McKinley, N. M. (2006). A measure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for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youth.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1), 65-76. doi:10.1111/j.1471-6402.2006.00263.x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doi:10.1111/j.1471-6402.1996.tb00467.x
- Min, J. H. (2008). The effects of media use on adolescents' lookism and the desire to improve body image: Focusing on tv entertainment programming and personal media. *Forum for youth culture*, 19(-), 45-78.
- Park, J. H., & Choi, T. S. (2008). The effect of body image on self-esteem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1(1), 117-129.
- Park, S. K. (2014). The effect of media involvement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plastic surgery related attitudes and intentions: Focusing on gender and 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4), 101-116.
- Park, S. Y., & Hwang, J. S. (2015). Effect of fashion/beauty TV media use on appearance consumption behavior.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47(-), 115-130.
- Secord, T.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5), 343-347. doi:10.1037/h0060689
- Shilling, C. (2011). *The body and social theory* (Lim, I. S., Trans.). Paju: Nanam.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Shin, H. O., & Cheon, H. J. (2008). The effect of body satisfaction, appearance interests, and appearance complex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4(2), 1-17.

Yoo, J. Y. (2016, May 24). '동상이몽' 노출증 여고생 등장, 학원 갈 때도 검은색 핫팬츠·민소매 [Exhibitionism high school girl appeared 'Dong-sang-yi-mong', black hot pants and sleeveless when going to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Sports Kyunghyang*. Retrieved August 10, 2016, from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605240823003&sec_id=540201&pt=nv

A Qualitative Study on Body Dissatisfaction & Appearance Management of Korean High School Girls

Ahn, Jin Hyun · Ha, Ji Soo⁺

Ph.D. candidate,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body dis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in Korean high school girls showing a lower level of body satisfaction and a higher level of appearance management. Henc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for Youth(K-OBC-Y) was conducted for 66 high school girls in Seoul and in-depth interview was done for 10 high school girls having a higher level of body consciousness more than 38.08, average scores of K-OBC-Y for girls that completed a questionnaire. As for body dis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of Korean high school girls, findings from in-depth interview are as follows. Firstly, high school girls showed dissatisfaction with their body resulted from specific ideal bodily images influenced by their parents, peers and media. socio-cultural influential factors. In particular, it showed that media are factors having the greatest effect on body dissatisfaction of high school girls. Secondly, high school girls recognized various kinds of appearance managements including management of face, weight and clothing along with bodily transformation as the usual basic but showed difference in weight management less shown from high school girls who undervalued utility of appearance management. Thirdly, appearance management of high school girls had close association with body dissatisfaction and they tried to overcome their unsatisfactory bodily parts through appearance managemen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d social issues of and gave suggestions for body dis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of Korean high school girls, providing basic data for desirable social and media roles in their bodily images. Besides, It also has significance in that it gav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need of active qualitative research for adolescents.

Key words : high school girls, adolescent, body dissatisfaction, appearance management, qualitative research

